

[15] 정 만 석

조선말기의 문신이며 이분은 임금의 잘못을 강하는 사간원으로 계시면서 임금께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책임감을 갖고 모든일에 충실하신 분이셨다. 그 중에서도 여러 고을을 암행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파악하고 탐관오리를 물리치셨다.

한번은 이 분이 동래부사로 계실때 정직하지 못한 관리들이 함부로 일본의 뇌물을 받고 통신문서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것을 알고 이분은 적은수의 부하를 이끌고 몇날 몇일을 추격하고 탐색한 끝에 못된 탐관오리들을 처벌하여 올바른 마음을 표하셨다 한다.

서부지방을 차별한다고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 민심을 어지럽히자 마침 평안도 외우사, 경감 진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어수선한 민심을 잘 수습하는 등 마을 백성들을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또 청나라를 다녀오신 뒤 병, 공, 이형조 판서를 지내셨고 우의정까지 오른분이지만 평범한 생활로 남의 본보기가 되시고 언제나 백성의 편에 서시어 이조말의 선비로서 대나무의 자화상 같은 성품으로 지금까지도 길이 마음속에 남겨져야 할 분이다. 이분의 호는 과재 본관 온양, 시호는 숙헌이며 1758년(영조 34년)에 태어나 1834년에(순조 34년) 많은 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